

8 퍼센트 (8Percent)

1. 회사 개요 및 소개

8 퍼센트(에잇퍼센트)는 대한민국 1 호 P2P 금융(온라인투자연계금융) 기업으로, **중금리 대출 분야**에 특화된 핀테크 플랫폼입니다. 2014 년 11 월 이효진 대표에 의해 설립되었으며, 2015 년 초부터 본격적인 개인 간 대출(Peer-to-Peer Lending)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회사명인 8 퍼센트는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의 **중간 금리대(8%대)**의 금리를 고객들에게 제공할겠다는 취지에서 지어졌습니다. 이는 곧 투자자에게는 **연 8% 내외의 매력적인 수익률**을, 대출자에게는 **20%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신 합리적인 중금리**를 제공한다는 균형점을 의미합니다.

8 퍼센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**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이 필요한 개인/소상공인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**하는 것입니다. 전통적으로 신용등급이 중간 수준이라 은행 대출은 어려우나 제도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대출을 받자니 금리가 너무 높은 **중신용자들이** 주요 대상입니다. 8 퍼센트는 이들에게 심사 과정을 거쳐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고, 그 대출채권을 투자상품으로 만들어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하도록 중개합니다. 쉽게 말해, 돈을 빌리는 사람은 8 퍼센트 플랫폼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, 투자자는 같은 플랫폼에서 해당 채권에 투자하여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얻는 **윈윈 구조**입니다.

서비스 방식: 8 퍼센트는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해 **투자 서비스와 대출 신청 서비스**를 운영합니다. 대출자가 플랫폼에 개인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(소상공인 대출) 신청을 하면, 8 퍼센트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(**E-Index** 등 AI 기반 모델)과 심사역 검토를 통해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. 심사를 통과한 대출은 적정 금리와 한도를 산정해 플랫폼에 **투자상품 형태로** 게시됩니다. 투자자(일반 개인, 법인 등)는 이 목록에서 원하는 대출채권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, 모집기간 내 목표금액이 모집되면 대출이 실행되어 차입자에게 자금이 전달됩니다. 이후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고,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비율에 따라 이자를 받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8 퍼센트는 차입자에게 중개 수수료와 투자자에게 운용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합니다.

8 퍼센트는 **국내 P2P 금융의 개척자**로서 여러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2015 년 3 월 국내 최초로 P2P 개인신용대출을 성공적으로 집행했고, 이후 업계를

선도하며 2017 년경부터는 부동산담보 P2P 대출, 법인신용 P2P 대출 등으로 상품 영역을 확장했습니다. **중금리 신용대출** 분야에 집중해온 덕분에, 8 퍼센트는 설립 이래 10 년 동안 누적 대출 취급액 **약 9,300 억 원**을 달성(2025 년 1 월 기준)하였고, 이를 통해 대출자들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 대비 **약 400 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 절감** 효과를 제공했습니다. 투자자들에게는 평균 **연 10% 내외**의 중수익을 안겨주어, 은행 예금 등 전통 투자대비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 투자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.

주요 대출 상품: 8 퍼센트의 주력 분야는 중금리 개인신용대출과

개인담보대출입니다. 개인신용대출은 직장인, 프리랜서 등의 급전이나 채무통합 수요를 많이 처리하며, 8 퍼센트의 신용평가모델과 데이터에 기반해 금리를 산정합니다. 개인담보대출의 경우 **수도권 및 광역시 아파트 담보대출과 증권계좌 담보대출** 등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. 특히 부동산담보대출은 8 퍼센트가 중금리 영역에서 은행권 대출과 대부업 대출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서비스로, 후순위 담보대출 등 은행이 소극적인 분야에서 연 10%대 중후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차입자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**증권계좌 담보 대출**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주식계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, 8 퍼센트는 이 상품의 경우 현재까지 **연체율 0%**를 유지할 정도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

기술과 리스크 관리: 8 퍼센트는 핀테크 기업답게 **AI 와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**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. 자체 개발한 **E-Index** 라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은 전통 신용점수와 함께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예측합니다. 또한 차입자의 **개인회생·파산 가능성 예측 모델인 Recovery Radar** 를 도입해 연체 발생 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려 노력합니다. 이러한 정교한 심사 모델 덕분에 8 퍼센트의 전체 연체율(2025 년 8 월 기준)은 약 **1.7%** 수준으로 낮게 관리되고 있으며, 최근 5 년간 평균 손실률도 1% 남짓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. 특히 법인·기관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안정적 수익 지급 이력은 8 퍼센트의 큰 자산인데, 이는 **효과적인 분산투자 매커니즘과 적극적인 채권추심**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한 결과입니다.

기업 문화 및 인력: 8 퍼센트는 스타트업이지만 금융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**투명성과 컴플라이언스**를 중시합니다. 2020 년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」 시행에 따라 2021 년 8 퍼센트는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을 마쳤고, 법에 따른 자본금

요건(5 억 원 이상) 충족, 전산 보안 요건, 임원 요건 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. 이 법 시행으로 8 퍼센트는 이제 법적으로 **P2P 금융업→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 제도권 편입**이 되었고,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(투자한도 제한 등)를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직원 수는 크지 않은 편으로, 2023 년 말 기준 약 30 여 명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소수 정예 인력으로 IT 개발, 심사운용, 투자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, 대신 **프로세스 자동화와 디지털 채널**을 적극 활용해 규모 대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운영 효율 덕분에 8 퍼센트는 P2P 업계에서 몇 안 되는 **생존 및 성장 기업**으로 남았으며,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10 년 가까이 서비스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.

한편, 8 퍼센트는 2025 년 1 월 창립 10 주년을 맞아 **브랜드 리브랜딩**을 단행했습니다. 회사 로고를 숫자 8 과 % 기호를 결합한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하고, 사명과 서비스명을 모두 **“에잇퍼센트”**로 통일한다고 발표했습니다(기존에는 법인명 에잇퍼센트, 서비스명 8 퍼센트로 구분되었음). 이 리브랜딩에는 앞으로의 10 년을 준비하며, 국내 1 호 P2P 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**글로벌 시장으로의 서비스 확장**을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. 실제 8 퍼센트는 국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**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자와 글로벌 자본을 연결하는 플랫폼**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